

한국에서 온 "길"에 대한 증언

최근 "길"은 기도 앱 '할로우'(Hallow)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스페인어판으로 100판을 돌파했고, Instituto Cervantes에 따르면 스페인어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입니다.

2025-10-2

2025년 10월 6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오푸스데이 창립자 성 호세 마리아를 시성하셨습니다. 성인의 가장 널리 알려진 저서는 "길"(Camino)입니다. 최근 "길"은 기도 앱 '할로우'(Hallow)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스페인어판으로 100판을 돌파했고, Instituto Cervantes에 따르면 스페인어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는 "길"을 읽으며 받은 영향을 증언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증언집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유학 계획을 포기하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에 힘든 시기였고,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

일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
니다. 오직 아내의 수입만이 가정 경
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저에게 굴욕적이었고 삶
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날들이 지나갔습니
다. 아내의 위로도 저를 크게 격려하
지 못했고, 저는 술에 의지하다가 심
각하게 병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
소리를 외면하며 스스로를 파괴하
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에 성 호세마리아의 책
'길'을 만났습니
다. 정확히 어떤 계기로 그 책을 접
하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천천히 읽기로 결심했고 그 효과
는 엄청났습니
다.

첫 구절부터("네 삶이 불모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성인께서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느꼈
습니
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성 호세
마리아

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를 매료시키고, 어떤 때는 저에게 외치셨습니다. 저와 대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탐독했고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요.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길'을 묵상하기 전에는 성덕이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제가 세상 한가운데서 성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은 제 가정, 사회, 그리고 신앙 생활 전체의 새로운 실재에 대해 제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 태도가 변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제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십자가와 고통이 닥치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변화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직업적 성공이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호세마리아께서는 신앙 생활, 직업 생활, 가정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제 태도를 누우셨습니다. 가사일도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대화하며,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명 다시 문제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의 무게와 스트레스도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즐거운 가족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아내에게 1부터 99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그녀가 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길'의 장을 함께 읽습니다. 아내는 가톨릭 신

자가 아니고 제 영적 조언에 그다지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길'의 장들은
큰 기쁨으로 듣습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hangugeseo-on-gil-e-daehan-jeungeon/](https://opusdei.org/ko-kr/article/hangugeseo-on-gil-e-daehan-jeungeon/)
(2026-3-5)